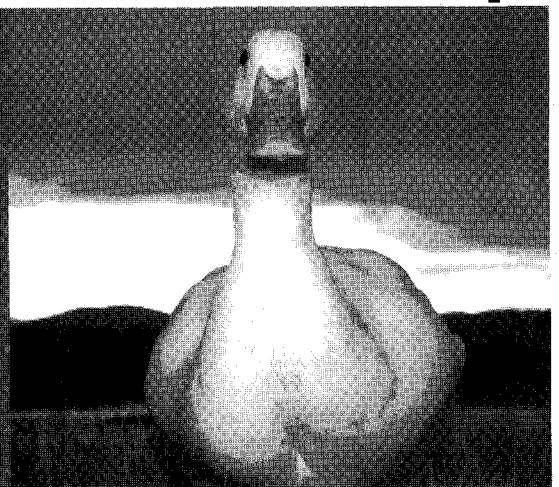


출처 : World Poultry

[영국] 체리밸리, 50주년 기념식



링컨셔(Lincolnshire)에 위치한 오리 생산업체 체리밸리는 지난 달 5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총매상고 기록을 갱신하는 등 겹경사를 맞보았다.

영국의 최대 오리고기 공급업체로 유명한 체리밸리는 2009년 한 해 오리들에 높은 복지 기준을 두어 생산한 Farm Fresh 사업 론칭 등 큰 성장을 이루며 전체적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난 12개월 동안 작년 대비 4백만 파운드 증가한 6천2백만 유로라는 매출고를 올렸다.

상무이사직을 맡고 있는 Richard Bird는 “체리밸리

가 50주년을 맞이한 점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, 반세기 동안 이러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럽다”고 소감을 전했다.

“올해는 Farm Fresh 라인을 성공적으로 시작하였고, 맥스 앤 스펜서와 테스코 등 대형유통업체에 납품을 시작했으며, 중국 시장에서도 체리밸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. 다음 50년 동안에도 이렇게 사업이 성장할 것 같다”고 말했다. 이어서 “지금까지 근 40년 체리밸리에서 일해 온 만큼 이렇게 사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고, 더 자랑스러울 수 없다”며 기쁨을 전했다.

체리밸리는 올해 베란다 시스템으로 오리들의 복지를 개선한 것으로 Freedom Food 승인을 받은 바 있다.



Duck's topic

출처 : 데일리메일 강경윤 기자 newsluv@seoul.co.kr

[영국]

픽픽~ 속았지? 오리 빼닭은 호박



금방이라도 픽픽 울음 소리를 낼 것처럼 오리를 빼닭은 호박이 외신에 소개됐다. 영국 서머셋 주에 사는 라이오닐(72)과 마릴린 패트리지(62) 부부는 얼마 전 집 앞 마당에 자란 호박을 발견하고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. 심은 지 몇 달 새 어린 팔뚝 만하게 자란 호박은 길게 굽은 목과 선명한 눈,

날카로운 부리까지 오리와 비슷해 보였다. 패트리지 부부는 “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. 둥글게 흰 모습이 징그럽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오리를 빼닭아 남편과 폭소를 터뜨렸다.”고 즐거워했다. 40년 간 각종 채소를 기른 부부에게도 동물처럼 생긴 호박은 처음이었다. 패트리지 부부는 이 호박을 먹지 않고 전시에 더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도록 했다. 야생 새 보호 주(Wild Bird Care Week)를 맞아 오리 닭은 호박을 기증한 부부는 “이 호박이 야생 동물 보호에도 이바지 하길 바란다.”고 말했다.